

일주문



대원 스님 초청 법회
합천 해인사 주지 현은 스님은 12월 4일 오전 9시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중 앙승가대학 교수 대원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다.



민추본 사무처장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성목 스님은 11월 24일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자비의 향기...' 출판기념회
소설가 남지섬씨는 12월 5일 오후 5시 서울 하립각 다이아몬드홀에서 <자비의 향기 육영수>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음악회 수익금 '생명나눔'에 전달
니르바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강형진 단장은 11월 21일 제4회 소아암 환아돕기 음악회 수익금 1700만원을 한국혈액암협회와 (사)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했다.



제12회 불교인권상 수상
한국대생불교연합회 신보라 회장은 11월 24일 한국불교여성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불교인권위원회 창립 17주년 법회에서 제12회 불교인권상을 수상했다.

김영섭씨 '올해의 재가불자상'에 선정

참여불교재가연대가 선정하는 '2006 올해의 재가불자상' 수상자로 김영섭(37·향우·사진)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광주대 불교학회장, 대불전 광주지부장을 거쳐 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장, 생명나눔실천광주전남본부 사무국장,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을 맡아 불교계가 열의한 광주지역에서 새로운 불교활동을 개척해왔고, 지난해와 올해 빛고을불교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광주지역 불교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섭씨

BBS 강현정 PD,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

불교방송 강현정 PD(사진)가 지난해 개국 15주년을 맞아 제작·방송한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장애여성의 성(性), 문을 열자!' 2부작으로 11월 22일 제8회 남녀평등 방송상 방송프로그램 분야 여성가족부장관상(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장애여성의 성(性), 문을 열자!'는 소외 계층인 장애인, 특히 장애 여성의 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2부작 다큐멘터리. 2005년 11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이달의 PD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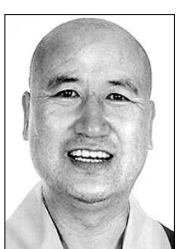
강현정 PD

인사
서울 봉은사 △총무국장=진화 △교무국장=재현 △포교국장=정현 △사회국장=승산 스님

“도량 넓혀 봉사 더 많이할 터”

구찌 평화상 수상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법관 스님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서 불교 전체가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고산 지대 소수민족을 찾아 양한방 의료 봉사를 펼치고 쌀과 생필품을 전달해왔다.

불국사 필리핀 포교원 주지 법관 스님(사진)은 한국인으로 최초로 구찌 평화상을 수상한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스님은 11월 23일 필리핀 메탈코 시어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인도주의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이 참석해 이 상의 권위를 입증했다.

“처음 필리핀에 포교원을 냈을 때는 가톨릭 국가이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그러나 절에서 가깝게는 5시간, 멀게는 이틀이나 걸리는 오지까지 찾아가 의료봉사를 펼쳐온 불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소개했다.

매주 1회 가톨릭 수녀들이 운영하는 마닐라 엘시카제재활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빈민가에서 가까운 포교원에서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백중, 크리스마스에 인근 이웃 1000여 명을 초청, 의료봉사와 잔치를 열어오기도 했다.

법관 스님은 “정부에서 땅을 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도량 불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더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봉사활동의 폭도 넓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은정학술상에 김천학 교수

심주환·박보람씨는 연구비

제 1회 은정학술상에 김천학 교수(사진)가 선정됐다. 김천학 교수는 ‘균여 화엄사상 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당선됐으며, 상금 700만원을 받게 된다.

은정학술상은 불교학 발전과 신진불교학자 양성을 위해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02)515-9351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또 ‘불교계 신진학자 육성 장학금’에 심주환씨(고려대 문화재학과 박사과정)와 박보람씨(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은정학술상은 불교학 발전과 신진불교학자 양성을 위해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02)515-9351

노병철 기자

지역조직 늘리며 사회운동 전개

참여불교재가연대 김동건 상임대표

“세상 속으로 더 넓게, 생활인들의 삶 속으로 더 깊이 스며들기 위해 사회문제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가는 모범을 창출해 나가는 혁신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을 중심으로 사후 재산 10% 기준은 동과 재가운동 확산을 위한 1만 가족공동체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1월 2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제4기 상임대표에 오른 김동건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대표·사진)는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문제에 등장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실현해 나가는 NGO로 거듭나는 한편, 교단자정센터, (사)불교아카데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밝은세상 등 재가연대 부설기관의 독립경영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재가불자들이

김동건 상임대표는 “지역조직을 단계별로 창립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직 확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소의계층의 스님들과 결합하는 방안과 교단과 거리를 둔 독자적인 불교운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새 회장 김기태씨 취임

부산개인택시불자회

“기분 좋은 일일입니다. 10% 기준은 동과 재가운동 확산을 위한 1만 가족공동체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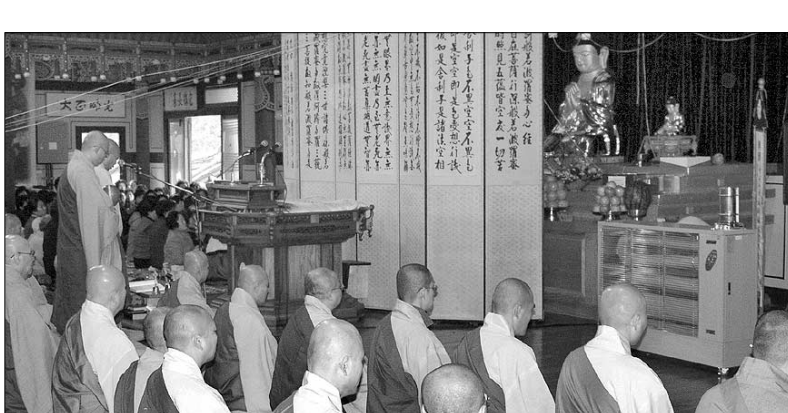
김기태 회장은 “회원 모두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환경보호, 교통정리, 불교계 행사 도우미 등 교계 안팎의 잔심부름을 마다 않고 18년째 해 오고 있는 부산개인택시 불자회는 회원의 차량에서 판매한 자비의 겸 수익금으로 매년 소년소녀 가장에게 학자금 지원해 오고 있다.

김기태 회장은 “회원 모두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부산=이은아 기자

“광명의 눈으로 화합·포용의 날을...”



봉선사 삼존불 점안법회 봉행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는 11월 21일 정종루에서 1000여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존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주지 철안 스님도 “설법적인 청풍무에는 상주 설법을 하시는 비로자나불을, 운허 스님의 기법관이 들어설 서암에는 아미타불을, 그동안 어린이 법회 등 각종 법회가 열렸는데도 불단만 있었던 방적당에는 석가모니 불을 모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봉선사 회주 필운 스님의 점안 의식에 이어 조실 월운 스님은 법문을 통해 “점안이라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며, 오늘날은 비로자나와 석가모니, 아미타 부처님이 금빛으로 웃을 인하시고 광명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가르침을 통해 가정은 물론 이 사회에도 모든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포용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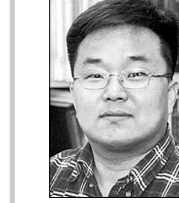
“교구본사중 봉선사만이 유일하게 암자가 없어 안타까웠었는데 이번엔 서암을 새로 짓고 그곳에 운허 스님의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도 세우게 돼 봉선사의 위상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봉선사는 이번 점안 법회에 앞서 11월 5일 개금법회를, 19일에는 복장지의 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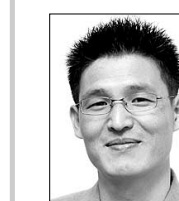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대상-이성수 기자 특별상-박봉영 기자

불교기자협회 '불교기자상' 선정...12월 4일 시상식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가 주최하는 2006 불기협 기자 대상에 불교신문 이성수(사진 위)·박인탁 기자의 ‘어린이가 불교의 미래다’가 선정됐다. 특별상 기획보도 부문에는 분지 박봉영 기자(사진 아래)의 ‘경제·경영’을 비롯해 법보신문 정하중 기자의 ‘한국사용 불기 2550년 틀렸다’, 민불신문 서현욱 기자 외 8명의 ‘Happy/ Ending’이, 특별상 시사보도 부문에는 불교신문 어현경 기자의 ‘백양사 도난 후불탱 미술관서 전시’ 등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12월 4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한국일보 송현빌딩 13층에서 열린다. 이날 불기협은 20년 이상 불교계 언론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월간 <불광> 남동호 편집국장과 불기협 발전에 공로가 큰 분지 김원우 취재차장에게 공로상을 전달할 예정이다.(02)733-1604

남동우 기자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사랑의 김장나누기



동국대 참사랑봉사단은 11월 25일 동국대 상록원 식당에서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동국대 학생 및 교직원들은 서울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무의탁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모 가정 및 대부도 동지청 소년의 집, 경기도 광주 향림원 등에 직접 전달할 650포기의 김치를 담갔다.

영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빙의 이전 제대로 알아!”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 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유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신수 비결” “이름 대사전”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글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역학 개인 지도

- 모집인원 : 3명 • 자격 : 제한없음
• 기간 : 12월 1일 (3개월 예정)
• 역학 및 작명 (숙식가능)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